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국방부장관 주재 만찬 성황리에 열려...

국내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국방부장관 주재 '90 만찬이 12월 6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李鍾九 국방장관, 金永先 국회 국방위원장, 柳續佑 한 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등 관계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李鍾九 국방부장관 만찬사

1990년도를 20여일 남긴 오늘 평소 존경하는 柳續佑 회장님을 비롯한 방산업계 대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자리에는 그동안 국정에 몹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金永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방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8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방장관이라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작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겹치는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집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충과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더구나 최근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사분쟁이라든가 또 그로인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이라든가, 이와같은 환경때문에 투자욕의 감퇴라든가 등등이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력건설 및 국가안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등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질서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밝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것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이완현상이라든가, 더구나 우군과 적의 개념조차도 불분명해져 가는 듯한 사회풍조가 크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 주변의 상황들이 여러가지 평화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참으로 부정적인 답변밖에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는 결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오던 전력증강사업이라든가, 군의 안보태세가 추호도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현재 외형적인 전력 수준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군수산업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대부분의 병기를 자체 생산하며, 핵무기까지도 자체생산해서 보유하게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정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력건설 그리고 안보태세를 조금도 늦출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산업체 책임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다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국가안보에 여러분들이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는 변화되어가는 이 상황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軍 자체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여러분의 생산에 한계가 온다든가, 또 외국의 수출문제가 벽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고통이라든가, 또 우리의 국내의 기술개발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고있는 고통이 누증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가능한한 외국에서 전쟁 물자를 직구매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 지향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술도입해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해서 軍의 전력증강에 보탬이 되고, 또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우리의 방산업계가 더욱 활력이 넘치는 그와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환경이 크게 호전되리 라는 전망은 그리 밝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여주신 그 애국심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내년에도 지속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듭 다짐드리는 것은 지나 여러분들이나 공동운명체라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더불어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주시길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개개인에 큰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

柳續佑 방위산업진흥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李鍾九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과 업계 대표 여러분—

장관님께서 國事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들을 위해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 일동은 신임 국방부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제정세와 안보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등 전환기적 시대에 대임을 맡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느 바와 같이 전후 40여년동안 세계를 지탱해왔던 東西냉전체제가 막을 내린 지금, 독일통일을 비롯한 세계질서의 새로운 개편과 韓·蘇간의 역사적인

국교수립 등에 의한 화해의 기운으로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서로의 군축안을 제시하고 불가침선언을 논의하는 전례없는 상황변화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계속되는 군비확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기본적인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야단체와 학생 등이 감상적인 통일논리에 젖어 한반도의 현 안보상황을 안이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듯 나라안팎의 급변하는 안보상황하에서,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22차 韓美 연례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방산업계에서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등 진일보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한미간의 안보체제도 대등한 군사동맹국 관계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초임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처럼 성공적인 성과를 이룩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방능력의 확보 등 군사적으로 철저한 사전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 방산업계에 커다란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수요의 한계를 비롯한 방위산업 본래의 특수성과 수출계약 등으로 말미암아 방산업체의 가동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방위산업 여건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방산업체는 급진 노동계와 재야세력의 투쟁 목표가 되고 있는바, 헌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행위의 금지된 방위산업체에서 불법노동쟁의가 빈발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생산·조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기업역량을 헛되이 소진(消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적극적인 防産 활성화 방안과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으로써, 그동안 어렵게 구축된 방위산업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관계관 및 업계 대표 여러분—
2천년대 초 궁극적인 자주국방능력 확립을 향한 전환점에서 우리 방산업계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産業報國」의 소명의식으로 우리 업계에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관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